

“의미있는 제주 프로젝트로 통합마케팅 성공사례 만들고파”

청년, 창업에 도전하다
(7) '하쿠다' 배유정 대표

수년간 국내·외 PR컨설팅회사서 경력 쌓고 창업
도내 예술·사회공헌프로젝트 참여 원스톱 서비스

“평소 ‘창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않았지만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있었어요. 하지만 수년간 국·내외 PR 컨설팅회사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다 보니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게 됐죠.”

제주에서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 '하쿠다'를 운영하고 있는 배유정(39) 대표의 창업 계기다.

그는 창업하기 이전에 터키와 서울 등 국내외에서 14여 년간 마케팅 등에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왔다. 그러던 중 문득 '언제까지 회사생활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청년'인 나이에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이후 그는 2018년 4월 제주에서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 회사 '하쿠다'를 창업한다.

배 대표가 창업한 회사 '하쿠다'의 뜻은 '하(하)뜻(하)다'라는 제주어다. 그는 제주를 기반으로 한 회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회사명을 제주어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어는 거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들어보면 아름답고 독특한 단어들이다”면서 “창업 초기 당시 의욕이 충만했고 ‘뭐든지 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제주어인 ‘하쿠다’를 고민없이 회사명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창업 초기 배 대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분야를 단지 이벤트 행사 업체 개념으로 생각하는 도민사회의 인식이었다.

배 대표는 “제주지역 곳곳에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보통 광고 대행사라고 하면 이벤트 회사 개념으로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환경 조사·분석부터 시작해 기획, PR메시지 제작, 프로모션, 이벤트, 디지털마케팅, 공간디자인 등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제주사회에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진 만큼 ‘하쿠다’의 서비스 제공은 제주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창업 2년차를 맞이한 '하쿠다'는 최근 예술프로젝트는 물론 사회공헌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캠페인 프로젝트, 호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의 기획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아트워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전시관람의 개념에 한정짓지 않고 더 다양한 분야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동그라미재단과 함께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도전'을 주제로 한 O-Prize(오프라이즈)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단계를 진행하기도 했다.

배 대표는 “올해 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의 기획 일부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제주의 참담한 역사라는 점에서 참여함으로써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제주



제주에서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 '하쿠다'를 창업한 배유정 대표가 제주에서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인 만큼 앞으로 이러한 역사적 책임,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갖고 진흥도 맡고 싶은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에서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 기업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들을 확장하고 싶다”면서 “해외 경험을 보유한 제주 전문가로서 입지를 구축해나가 전략 구축, PR, 디지털마케팅, 디자인, 공간마케팅, 세일즈프로모션의 기획 및 실행과 커머스 유통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태은기자 ty9456@ihalla.com

누군가의 한끼 책임질 이곳이 나의 새인생 터전

꿈꾸는 실버세대
(7) 시니어손맛집

어머니 손맛에 푸근한 인심 더해 14년째 운영
“일할수 있어 행복... 맛있다고 할때 가장 보람”

제주시 노형동 제주 탐라도서관 후문 맞은편 골목에 들어선 '시니어 손맛집'은 오전 8시부터 문을 연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주로 이 시간대 찾기에 때문에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있다. 점심 때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찾는다. 세상 물정과는 상관없다는 듯 민기 힘든 저렴한 가격에 주인공의 손맛과 푸근한 인심까지 더해진 든든한 한끼가 이 식당의 매력이다.

시니어손맛집이 더 특별한 이유는 누군가의 한끼를 책임지는 이곳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2의 인생을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시니어손맛집은 제주시니어클럽의 첫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장으로 노인 5명이 이 식당에서 새 삶을 꾸려가고 있다.

제주시니어클럽 김효의 실장은 “정부의 노

인일자리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니어손맛집은 사실상 1세대격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처음에는 시니어클럽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다 2012년 보건복지부의 민간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후부터 우리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노인들과 함께 시니어손맛집을 꾸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첫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식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리네 어머니 세대들이 집에서 항상 하던 것이 음식 조리이기 때문에 소정의 교육만 거치면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고 시장에 정착하는 데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니어손맛집에선 노인들이 격일제로 근무한다. 1명은 주방에서 음식 조리를 전담하고

1명은 음식 서빙과 장부 기록을 맡는다.

기자가 찾은 지난 10일은 진기순(70)씨와 문영자(72)씨가 근무하는 날이었다. 진씨와 문씨는 2005년부터 이 일을 했다고 한다. 물론 부침도 있었다. 지금은 두루치기, 김치·된장찌개, 만둣국, 비빔밥 등 5가지 메뉴를 선보이고 있지만 처음 문을 열 때에는 국수를 팔았다. 국수 매출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문씨는 “학생들은 밥을 먹어야 하는데...”라며 그 원인을 짚었다.

2008년 지금의 메뉴로 변경하고나서 숭통이 트였다고 한다. 식당 간편처럼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한 밥집이라는 소문이 나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5가지 메뉴 중 두루치기만 6000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40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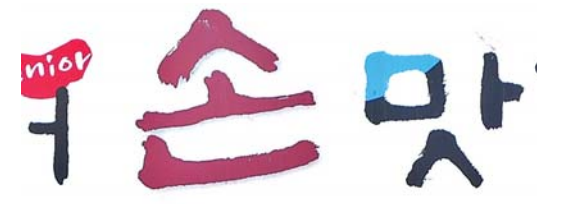
진씨와 문씨는 이 가격으로 식당이 유지되

느냐는 질문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 택시기사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며 손사래쳤다. 학생들에게는 ‘고밥’을 쥐어주고, 김치찌개에는 김치를 적게 넣으면 안된다는 말도 입버릇처럼 했다.

진씨와 문씨는 식당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나이에 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다. 진씨와 문씨는 “식당에 나오면 손님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자식들한테 손 안벌리고 직접 돈을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무엇보다 손님들이 맛있게 칭찬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어르신들의 인심과 노력이 더해진 결과 시니어손맛집은 2011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시장발전형 고령자 친화기업에 선정돼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제주시니어클럽 김지선 팀장은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으로 국비 2억원을 지원 받는다”면서 “식당 리모델링과 함께 어르신들의 동선을 최적화함과 동시에 수익성을 높일 수



왼쪽부터 시니어손맛집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제주시니어클럽 김효의 실장과 문영자, 진기순, 김지선 팀장.

있게 특화 메뉴 식당으로 전환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